

[지주회사]

숨어있는 제약바이오주

제약바이오 성장성 등으로 살펴본 알짜 지주회사

2017/11/27

■ 인구 고령화 및 수출 등으로 인하여 제약바이오 성장할 듯

일본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 진입하면서 전체 인구 중 5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, 그 후 약 10년간 노령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. 이에 따라 일본 내 헬스케어 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. 즉, 증시는 결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인식하여 반영하는 것이다.

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경우 일본보다 정확하게 10년 뒤인 2000년대 중반부터 전체 인구 중 5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. 이와 더불어 전 세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출시장이 커지면서 제약바이오의 성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.

■ 실적, 자산가치, 배당 등을 고려할 때 제약바이오 관련 지주회사 매력적

최근 제약바이오주들이 성장성 반영 등으로 급등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.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 지주회사 투자하는 것이 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. 우선 실적 및 자산가치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의 경우 보통 실적 보다는 성장성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반하여 지주회사의 경우 제약바이오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벌류에이션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주가 안정성 측면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 지주회사는 배당을 주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이다.

■ 투자유망 제약바이오 관련 지주회사

- 코오롱(002020): 티슈진(27.5%) 및 코오롱생명과학(20.3%) 등의 지분 보유로 인보사 관련 성장 수혜
- SK케미칼(006120): 생명과학부문 CSL 앱스틸라 로열티 수입 확대 및 대상포진백신 출시 영향으로 내년 수익성 개선 기대됨
- SK(034730): SK바이오팜(100%)의 뇌전증 치료제 YKP3089의 3상 종료 및 상업화 기대 등과 더불어 SK바이오텍(100%)의 증설효과 기대됨
- 삼성물산(028260): 삼성바이오로직스(43.4%) CMO 아웃소싱 확대로 글로벌 1위 바이오 CMO 경쟁력 부각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유럽 시장 선점 및 각종 바이오시밀러 미국 허가 기대됨
- 삼양홀딩스(000070): 삼양바이오팜(100%)은 수술용 봉합사와 항암제 제넥슬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향후 항암제 및 신개념의 약물 전달 시스템(DDS) 성장성 부각 될 듯

Analyst 이상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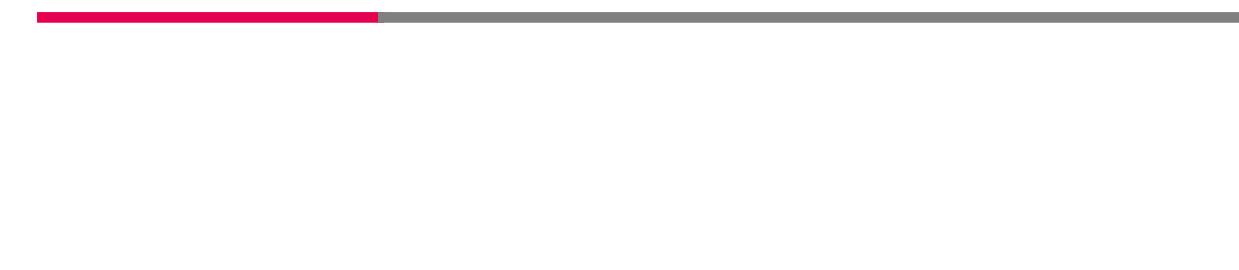
(2122-9198)

value3@hi-ib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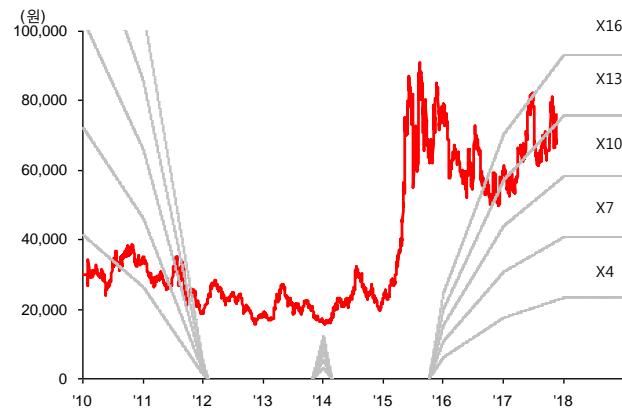
조경진

(2122-9209)

kjcho@hi-ib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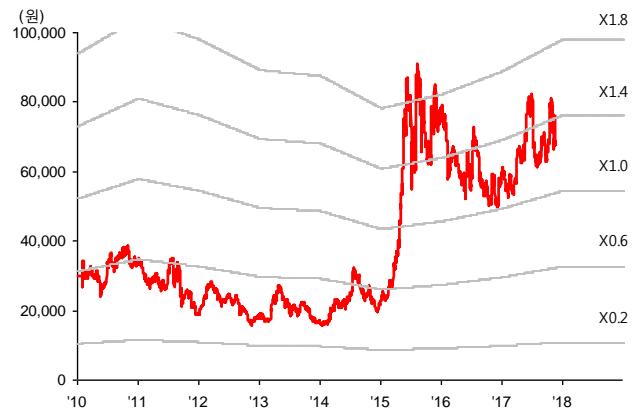


<그림 1> 코오롱 PER 밴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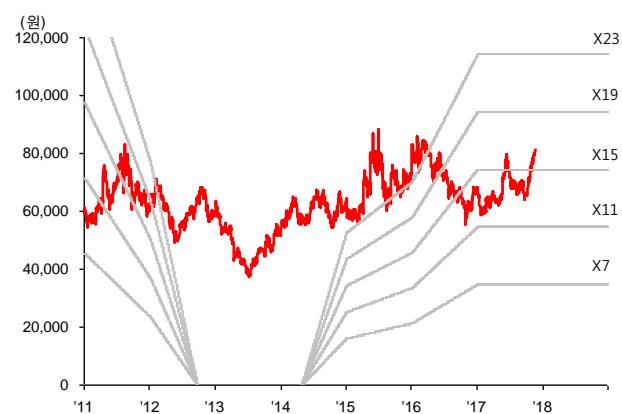
자료: 코오롱, 하이투자증권

<그림 2> 코오롱 PBR 밴드



자료: 코오롱, 하이투자증권

<그림 3> SK 케미칼 PER 밴드



자료: SK케미칼, 하이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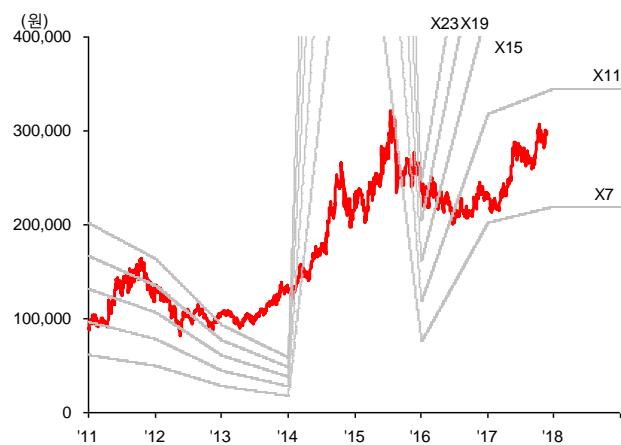
<그림 4> SK 케미칼 PBR 밴드



자료: SK케미칼, 하이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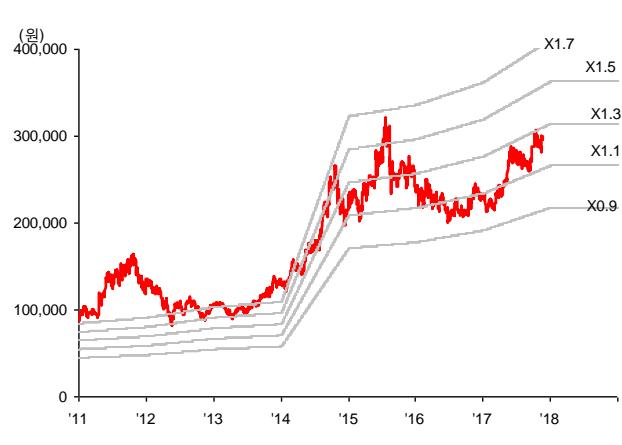


<그림 5> SK PER 밴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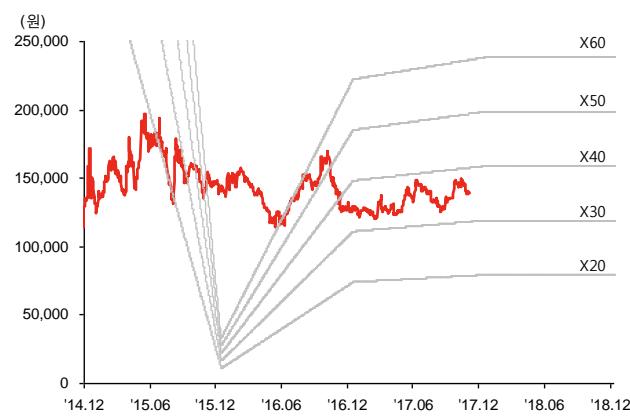
자료: SK, 하이투자증권

<그림 6> SK PBR 밴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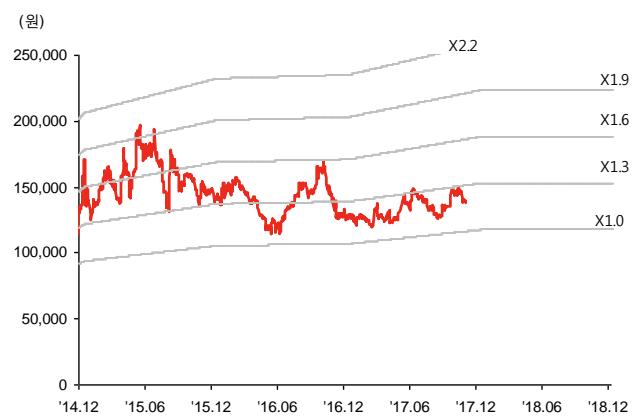
자료: SK, 하이투자증권

<그림 7> 삼성물산 PER 밴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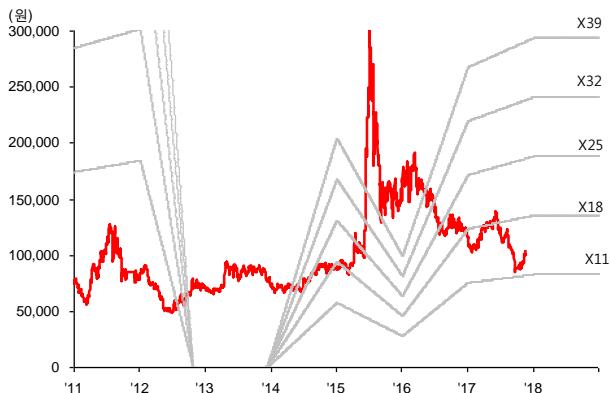
자료: 삼성물산, 하이투자증권

<그림 8> 삼성물산 PBR 밴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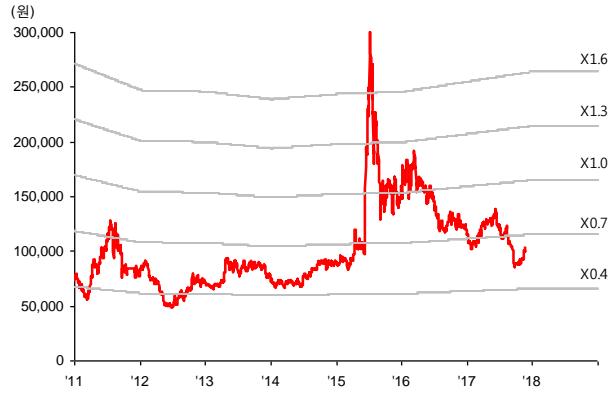
자료: 삼성물산, 하이투자증권

<그림 9> 삼양홀딩스 PER 밴드



자료: 삼양홀딩스, 하이투자증권

<그림 10> 삼양홀딩스 PBR 밴드



자료: 삼양홀딩스, 하이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,

- ▶ 회사는 해당 종목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▶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[작성자: 이상현, 조경진](#)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종목추천 투자등급 (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)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.(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)

- Buy(매수): 추천일 종가대비 +15%이상
- Hold(보유): 추천일 종가대비 -15% ~ 15% 내외 등락
- Sell(매도): 추천일 종가대비 -15%이상

2. 산업추천 투자등급 (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)

- Overweight(비중확대), - Neutral (중립), - Underweight (비중축소)

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-09-30 기준

구분	매수	중립(보유)	매도
투자의견 비율(%)	88.3 %	11.7 %	-

